대행선 재조명, 첫 묘공학술상 시상

대행선연구원, 7월 21일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 개최

최우수상에 오용석 정재요 박사
대행스님 선법 현대적 해석
사회과학적 접근 높은 평가
우수상에 김경집 박사 선정
예비학자 6명 장학금도 전달



제1회 묘공학술상에 선정된 학자들과 재단 관계자 및 심사위원들의 모습. 사진 왼쪽 앞열부터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 최우수상 수상자 오용석 원광대 박사, 정재요 경북대 박사,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심사위원장 해주 스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사진 뒷열 오른쪽 우수상 수상자 김경집 진각대 박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이 불교학 연구자 지원을 위해 제정한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이 7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렸다.

첫 묘공학술상 최우수상의 영예는 오용석 원광대 박사의 '대행선사의 간화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과 정재요 경북대 박사의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김경집 진각대 박사의 '근대 일본불교의 한국 진출과 활동 양상'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첫 시상식이 진행된 묘공학술상은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고 홍포하기 위해 제정됐다. 묘공학술상은 불교학계 최대 규모의 상금을 자랑하는 학술상으로 2018년 공모, 18명의 학자들이 지원해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9명의 학자들이 논문을 제출했다. 완성된 논문은 묘공학술상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해주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

이날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묘공이라는 큰스님의 법호가 담긴 학술상에 맞게 훌륭한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마음을 내어주고, 학술장학을 받는 예비학자들은 미래의 훌륭한 학자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은 "대행선 및 불교학 발전을 바탕으로 대행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편성 확보를 위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원 사업을 통해 한마음선원의 3대 핵심목표인 생활불교, 현대불교, 세계불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중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사위원장 해주 스님은 "세 편의 논문은 연구의 독창성, 논리의 체계성, 자료의 활용성, 논문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됐다. 원전 자료가 정확하고 충분한 활용과 설득력 제고를 통해 이번 학술상 시상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상까지 이르는 수준으로 높였으면 하면 바람"이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오용석 원광대 박사는 "스님이 설하신 선법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앞으로 연구는 선의 전통개념을 넘어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언어와 색으로 바꾸는데 천착하겠다. 대행 스님의 선은 현대적인 부분에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재요 경북대 박사는 "평상시 큰스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스님의 사상이 불교나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과학으로 응용될 필요가 있어 응모하게 됐다"며 "보다 더 학문에 정진해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에도 가르침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김경집 진각대 박사는 "근대 이후 일본불교가 포교소를 어디에 세웠는지를 살핀 논문으로 일제의 근현대 수탈과정에서 불교를 이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로 논문을 제출했는데 수상의 영광을 안아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묘공학술상 시상식에 이어 제1회 묘공학술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

생명나눔·광동학원 업무제휴 협약

19일 법인 산하 2개 학교… "바른 '생명나눔' 인식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와 학교법인 광동학원(이하 광동학원)이 청소년들에게 바른 '생명나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손을 잡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광동학원은 7월 19일 남양주 광동고 영어전용실에서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협약은 광동학원 법인 산하 남양주 광동고와 의정부 광동고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양주 광동고 협약식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이천기 광동고등학교장, 정현숙 후원회장, 홍보위원 및 마하무용단원이 참석했으며, 의정부 광동고 협약식에는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석희 의정부광동학교장, 홍보위원이 참석해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광동학원과의 업무 협약은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행정이 변화하면서 이뤄졌다. 지금까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필 서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는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게 연령대를 낮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동학원 재학 학생들도 생명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동학원은 △생명나눔운동 관련 동아리 개설 및 운영 △학교 축제 및 문화행사 시 장기기증 캠페인 실시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행사 시 동아리 부스 등을 운영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광동학원을 위해 △법인 소식지 활용해 광동고 동아리 활동 홍보 △동아리 학생 대상 장기기증 홍보교육 실시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봉사시간 부여 △동아리 캠페인 진행에 따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이번 광동학원과의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공주시, 8월의 역사인물 '영규 대사' 선정

7월 24일 발표… 갑사 템플스테이 등 추진

임진왜란 당시 최초 승리인 청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승병장 기허당 영규대사(생년 미상~1592 · 사진)가 공주시의 '8월의 역사인물'로 선정됐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7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주시의 8월의 역사인물로 승병장 영규 대사를 선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규 대사는 공주 계룡면 월암리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박씨, 호는 기허다. 최근 발굴된 〈영규사실기〉에 따르면 영규 대사는 19세에 계룡산 만정 북록(현 연천봉) 청련암에서 출가했으며, 영변 묘향산에서 서산 문하에서 20년간 수학하며 여러 범어경전과 외서를 공부했다. 공부를 마친 영규 대사는 은사의 뜻에 따라 갑사로 가서 주석하게 된다.

또한 영규 대사가 갑사에 있으면서 사제들을 도와 스스로 장작을 잡았고, 이를 쪼개 목검처럼 사용해 무예를 익혔다고 기록돼 있다.

대사의 검소함을 설명하는 대목도 있다. 기록에 따르면 영규 대사는 여름에는 베옷만, 겨울에는 솜도 넣지 않은 옷을 입었다. 이에 사중 대중들이 지나치게 검박하다고 지적하자, 대사는 "옷이라는 것은 단지 몸을 덮는 것이면 족하다"고 답했다.

영규 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장이 되어 승병 800명을 이끌고 의병장 조헌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는 등 최초로 승병을 일으켰으며, 임진왜란 육전의 최초 승리를 이끌었다.

청주성 전투의 승리로 조정에서 영규대사에게 동지중추부사 벼슬(당상관)과 의복을 내렸으나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이후 승병(僧兵)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영규대사는 금산전투에서 부상당한 몸으로 갑사로 가다가 월암리 지금의 정려비각 부근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진다.

묘비는 1810년(순조 10)방계 후손들이 세웠으며, 1738년(영조 14) 승병장 휴정과 유정 그리고 영규의 영정을 봉안한 표충원이 건립돼 유교적 제향이 이뤄졌다. 1813년(순조 13)에는 충절비가 세워졌다.



영규대사 영정

공주에는 유평리에 영규대사묘(충남도 기념물 제15호), 월암리에 영규대사비(문화재자료 제56호)가 있다. 대사를 제향하는 표충원(문화재자료 제52호)이 갑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주시는 8월 역사인물 선정에 맞춰 영규 대사에 대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영규 대사의 뜻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영규대사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8월 30~31일 갑사에서 개최하며 9월 25일에는 계룡면 유평리 영규대사 묘역에서 '영규 대사 제향 및 추모제'를 개최한다"면서 "영규 대사의 숭고한 정신과 애국혼을 널리 현창하고 이를 후세에 기리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난치병 환아 조속한 쾌유 기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난치병어린이 치료기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난치병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치료기금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17일 재단 사무실에서 '2019년 난치병어린이 치료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재단은 금호청소년독서실과 답십리청소년독서실의 추천을 받아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김령(횡문근육종) 환아와 황윤서(뇌병변) 환아에게 치료비 각 500만원, 700만원을 전달했다.

김령 환아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아이로 심한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 가족들이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근육에 암이 생기는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았다. 세 번에 걸친 제거 수술을 받고, 암세포 전이로 두 차례 수술을 더 했다. 현재는 항암치료 중이다.

돌 무렵 다리에 이상을 보였지만 병원 검사결과 원인을 찾지 못했던 황윤서 환아는 결국 뇌병변으로 인한 다리 강직과 편마비가 발생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발의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관심 갖고 응원하며 조금씩 모은 기금이라 의미가 있다.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환아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올해 '제19회 난치병어린이지원 300배 철야정진'을 통해 총 1억6800만원의 치료비를 모연한 재단은 국내 환아 18명과 라오스 환아 7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호섭 기자

